

## 4월 인성 교육 자료

(매주 월요일 아침 시간 활용)

4월 3일

고등학생인 고애신은 최근에 많이 속상하다. 생활과 윤리 수업시간에 수행평가로 조별과제를 받았는데, 조원 중 한 명인 김희성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조별활동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별과제는 자료조사, 발표자료 제작, 발표 등 각자의 역할을 맡아 협력을 잘 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성은 수업과 조별과제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역할도 맡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조별과제는 조원 모두 동일한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김희성은 아무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조별과제 수행을 위해 고애신과 남은 조원들은 잠도 줄여가며 자료를 조사하는데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김희성과 같은 점수를 받는 것도 화가 나는 일이다. 그렇다고 조별과제를 손 놓게 된다면 조원 모두가 나쁜 결과를 받게 되므로 마냥 포기할 수만은 없다. 사실 고애신도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대학 입시만 놓고 본다면 고애신도 생활과 윤리 조별과제가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진 않다. 하지만 고애신은 자신이 비협조적으로 활동하면 남은 조원들이 너무 많이 고생할 것이 뻔하고 또한 입시와 관계없이 학생은 주어진 수업시간에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애신은 김희성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김희성은 조원들을 비롯해 같은 조원인 고애신이 자신을 이기주의자로 치부하는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다. 김희성은 체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체대 입시에 있어서 생활과 윤리 수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김희성에게 조별과제는 중요하지 않다. 더욱이 최근 체육 실기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느라 체력도 매우 부족하다. 차라리 그 시간에 충분히 쉬고 체육 실기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활동이므로 나를 배제하고 조별과제를 수행하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제적으로 조별과제 참여를 강요한다. 난 단지 개인적으로 최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할 뿐인데, 조별과제를 강요하는 고애신과 조원들의 의견이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체주의라고 생각한다.

### ※ 생각해보기

1. 고애신의 의견 중 동의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2. 김희성의 의견 중 동의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3. 고애신의 의견 중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4. 김희성의 의견 중 동의 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5. 본인은 고애신과 김희성 중 누구의 의견에 동의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5월 인성 교육과 내용이 연결됩니다. 커밍 쏘~!!)